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J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Hig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School-Record Focused Selection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J University

이제영\*, 백광호\*\*, 백민경\*\*\*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Je-Young Lee(jylee@jj.ac.kr)\*, Kwang-ho Baek(khbaek@jj.ac.kr)\*\*,  
Min-kyung Baek(bmk0419@jj.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 역량을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입 전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02명과 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6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J대학의 학생종합전형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크게 '서류평가', '면접평가', '기초설문'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전형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인성, 적성, 잠재력 모두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해당 전형의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학생부종합전형 | 대입제도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2015 개정 교육과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hig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standard of the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s in order to measure student competencies more fairly and accurately. To this end, 102 high school teachers and 68 parents with high school children nationwide were surveyed online. The online questionnaire was produced based on the student screening criteria of J university and consisted largely of the following three areas: 'document evaluation', 'interview evaluation', and 'demographic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teachers and parents said that the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is a college admission format that can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econd, both teachers and parents responded that personality, aptitude and potential are all important factors in document evalu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 Third,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s should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order to promote the 2015 revised curriculum, but securing fairness in the admission process should precede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wer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 keyword : |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 College Admission System | Document Evaluation | Interview Evaluation |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 이 논문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20년 12월 17일  
수정일자 : 2021년 01월 05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1월 05일  
교신저자 : 백민경, e-mail : bmk0419@jj.ac.kr

## I. 서론

교육부는 2019년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3년도 대입까지는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되, 2022학년도 대입부터 40% 이상이 되도록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활동에 해당하는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자기소개서 등이 폐지되며, 특히, 소논문,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교사·학생·학부모들은 정시 확대에 따라 학종 전형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걱정하고 정시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 학생들은 고 1~2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에 올인 하겠다'고 하면서 정시 준비 이외의 활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교사들은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과 수업과 학교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과거의 문제 풀이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회귀할 것을 걱정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시한다[1].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학교 수업과 동떨어진 시험으로 순위를 매기는 교육을 지양하고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정시의 기반이 되는 수능이 모든 수험자가 한낱한시에 치르는 공정한 시험일 수 있지만, 오로지 학교 수업만 듣고 좋은 성적을 얻기 힘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변별하는 기능이 크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대입 전형은 학종이라는 주장이 많다[2-4].

학종은 이미 대입 전형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시 확대 발표로 인해 학종의 의미 및 영향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종은 재학생 위주의 입시 전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로 약칭함)가 충실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이를 통해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재학생 상당수는 학종과 정시를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입시 부담이 큰데, 앞으로는 학종 준비에 있어 수상경력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자기소개서 폐지 등의 정책으로 기존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학생부에서의 기재 사항의 제한으로 인해 학종 전형에서 교과 영역 즉 '교과활동상황'의 반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활동상황'은 '교과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영역을 정상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고,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 맞는 대입 전형 요소를 찾고, 대입 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에 위치한 J대학의 사례를 기준으로 학종 전형의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의 평가 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이나 수능과 같은 성적 자료만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학생이라면 특별한 준비 없이 대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전형으로 대학입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지표 중 하나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고교교육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이 기여해 온 바가 크다.

대학입시의 새로운 방향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2014년 명칭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에 시행하였던 입

학사정관제와 유사한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전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의 입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와 목적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이 가져온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비교과 활동의 강화이다[5]. 학생의 학교생활의 충실성,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이며, 이를 통해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의 참여 정도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다[3].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인 학생생활기록부에는 수량화된 교과 성적 이외의 항목들을 교사가 평가하여 기록할 수 있고, 이러한 교사의 권한 강화는 토론과 발표의 참여도 향상 등 학생의 참여도 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진로 및 진학 지도의 내실화를 가져왔다[6][7].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고, 이에 따른 준비가 이어져야 한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다양한 진로 및 진학 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학생 선발에서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이다[2][8]. 즉 학생부종합전형이 특정 계층이 일부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급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었지만, 강남, 자사가, 특목고 학생들이 학종을 통해 입학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오히려 대학 입학 기회의 형평성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9].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이 왜 본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했는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정보 등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2. J대학 학생부종합전형

J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또한 기존의 학업성적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실천하는 봉사인', '학습하는 교양인', '도전하는 전문인'을 발굴·선발·양성하고 있다. 2020학년도 J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특징 및 전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2.1 서류 평가

J대학은 서류 평가 시 학생부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며, 서류 평가 요소 및 평가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서류 평가 기준

평가 영역 (배점)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인성 (30)	학생생활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감과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신뢰 있게 행동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파악</li> <li>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이는 행동 파악</li> <li>목표를 이루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참거나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파악</li> </ul>
	사회성 및 봉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나 타인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나누려는 모습 파악</li> <li>도래, 뒷사람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자질 파악</li> <li>활동의 자발성 내용과 지속성, 실천 의지 파악</li> </ul>
적성 (55)	학업성취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년별 학업성취 수준 및 성적 추이 파악</li> <li>전공 관련 교과 이수 여부 확인</li> </ul>
	학업수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과목별 수업 태도, 참여도를 통해 학습 태도 및 전공 적성 확인</li> <li>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 체계적인 학습관리 능력과 관심 과목의 자기주도성 학습능력 확인</li> <li>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학습관리 능력과 학업수행능력 확인</li> </ul>
	전공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 관련 탐색 활동을 통해 모집단위에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 파악</li> <li>자격증, 수상경력 등 전공 관련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성취수준 파악</li> <li>교내의 다양한 활동 내용, 역할, 실적, 노력을 통해 적극성 및 다양한 경험과 능력 파악</li> </ul>
잠재력 (15)	성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찾아서 결정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력 확인</li> <li>부족한 면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 확인</li> <li>많은 경험을 시도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 확인</li> <li>성장환경, 학습환경 등을 고려</li> </ul>

서류 평가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항목별로 정해진 반영 비율이 없으며, 또한 학생부 내에서도 교과와 비교과를 나눠서 반영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J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지원자의 교과와 비교과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면접 평가

면접고사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며, 서류평가와 동일하게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의 평가 영역 내에서 학생부를 토대로 작성한 개별 면접문제를 기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고 교과 관련 지식은 질문하지 않는다.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인의 제출서류를 숙지하고 면접에 임하면 된다. 면접 평가는 일반학생 전형,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창업인재 전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면접 평가(일반학생 및 고른기회대상자 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면접 평가 기준

평가 영역 (배점)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인성 (40)	인성 및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li> <li>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li> </ul>
적성 (40)	전공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을 배우고 수학하기 위한 능력이 충분한가</li> <li>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가</li> </ul>
잠재력 (20)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동기와 학습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li> <li>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한가</li> </ul>

면접고사(해당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면접문제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 2.3 선행연구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의 도입 이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김한솔[8]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연구의 흐름을 크게 인식 연구, 효과성 및 타당성 연구,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식 관련 연구는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교사[2][10-12][21], 학생[3], 입학사정관[11][13], 입시 실무자[4] 등으로 다양했다. 강기수, 박소영[2]은 대입환경 인식,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 및 평가 요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 대상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논술, 실기, 수능 위주의 전형에 비해 사교육의 영향을 덜 받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 학생부 교과/비교과 영역과 면접에 비해 추천서나 수능 최저기준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였다. 공자원, 박은아, 이지연[3]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교내활동 활성화', '계층 및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입시부담 감소', '사교육비 감소'의 순으로 고교 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효과성 및 타당성 관련 연구에는 정성적 평가의 타당성 연구[14], 고등학교 교육 변화 연구[15][16],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17-19] 등이 있다. 이미경, 오희정[14]은 입학 당시의 학업성취는 매우 유사하나 1학기 동안의 대학 교육 후 학업 성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 두 사례를 선택하여 이 둘 사이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학습 의지, 학습 방법의 탐색과 수행, 자기효용감 중, 특히 학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학습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보경, 최지은, 유평수[15]는 전북 지역의 8개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계획서를 분석하여 대입 전형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비교과 영역,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과 독서 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윤지, 김진[17]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탐색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을 감소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의 대부분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연구[8-10][12][20][22][23]였다. 김한솔[8]은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를 면담하였다. 그 결과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며, 외부 요인에 따라 비교과 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 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책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별 활동 기록을 표준화해야 하며, 학생생활기록부에서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광현 [1]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비 감소가 뚜렷하지 않고,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과도하게 기록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생 선발 기제로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역시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평가의 공정성 등의 다양한 주제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시에 발맞추어 학생부종합전형, 특히 평가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설문 대상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102명과 현재 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 68명이다. 이들의 인구학적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설문 대상의 인구학적 정보

대상	범주	구분	빈도	비율
교사 (n=102)	지역	특별시	14	13.7
		광역시	29	28.4
		중소도시	54	52.9
		읍면지역	5	4.9
	성별	남자	34	33.3
		여자	68	66.7
	교직 경력	5년 이하	12	11.8
		6-10년	26	25.5
		11-15년	29	28.4
		16년 이상	35	34.3
고등학교 종류	일반계고	90	88.2	
	특수목적고	7	6.9	
	특성화고	5	4.9	
학부모 (n=68)	지역	특별시	32	47.1
		광역시	6	8.8
		중소도시	30	44.1

성별	읍면지역	0	0.0
	남자	9	13.2
고등학교 종류	여자	59	86.8
	일반계고	62	91.2
	특수목적고	3	4.4
	특성화고	3	4.4

####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설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묻기 위해 제작되었다. 설문지는 전북 지역에 위치한 J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3인의 연구진이 초안을 개발한 후 현장 교사 2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설문은 크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서류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면접평가)', '기초 설문'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기초 설문 부분을 제외한 교사용 설문지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항 유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사용 설문지의 구성

영역	질문	유형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서류평가)	1-1. 다음 중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입학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형
	1-2. J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영역(인성, 적성, 잠재력) 중 대학에서 수험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각 영역의 중요도를 선택해주세요.	5단계 리커트 척도
	1-3. 위 평가 요소(인성, 적성, 잠재력)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평가 영역이 있으면 제언해 주세요.	기술형
	1-4. 인성은 크게 '학생생활 충실성'과 '사회성 및 봉사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요소의 중요도를 선택해주세요.	5단계 리커트 척도
	1-5. 위 평가 요소(학생생활 충실성, 사회성 및 봉사성) 외에 인성영역에서 필요한 평가 요소가 있으면 제언해 주세요.	기술형
	1-6. 적성은 크게 '학업성취능력', '학업수행능력', '전공적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요소의 중요도를 선택해주세요.	5단계 리커트 척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면접평가)	1-7. 위 평가 요소(학업성취능력, 학업수행능력, 전공적합성) 외에 적성영역에서 필요한 평가 요소가 있으면 제언해 주세요.	기술형
	1-8. 잠재력 부분에 있어 '성장가능성' 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면 제언해 주세요.	기술형
	2-1. J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평가 영역(인성, 적성, 잠재력) 중 대학에서 수험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각 영역의 중요도를 선택해주세요.	5단계 리커트 척도
	2-2. 인성은 크게 '인성 및 가치관'과 '의사소통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요소의 중요도를 선택해주세요.	5단계 리커트 척도
	2-3. 인성 부분에 있어 '인성 및 가치관', '의사소통능력' 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요소가 있으면 제언해 주세요.	기술형
	2-4. 적성 부분에 있어 '전공적합성' 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기술형

생각하는 평가 요소가 있으면 제언해 주세요.	
2-5. 잠재력 부분에 있어 '성장가능성' 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요소가 있으면 제언해 주세요.	기술형
2-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기술형

### 3. 자료 처리 방법

본 설문문의 문항은 크게 명목 척도를 활용한 선택형 문항,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선택형 문항, 자유 기술형 문항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명목 척도를 활용한 문항은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등간 척도인 5단계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문항은 집단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후, 독립 표본 t-검정을 활용해 교사와 학부모 집단의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술형 문항은 응답 내용을 확인 후 유목화하여 범주별로 정리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서류 평가 영역

#### 1.1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63.0%)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전형(23.5%),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교과전형(13.5%)을 선택하였다.

표 5.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

대상	N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생활 기록부 중심)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성적 중심)	정시: 수능 위주 (수학능력시험 중심)	합계
교사	102	73 (71.6%)	13 (12.7%)	16 (15.7%)	102 (100.0%)
학부모	68	34 (50.0%)	10 (14.7%)	24 (35.3%)	68 (100.0%)
합계	170	107 (63.0%)	23 (13.5%)	40 (23.5%)	170 (100.0%)

집단별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학생 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지만, 학부모(50.0%)에 비해 교사(71.6%)의 응답 비율이 20%가량 높았다. 한편 2번째로 많은 응답을 기록한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은 교사(15.7%)에 비해 학부모의 선택 비율(35.3%)이 20%가량 높았다.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교과전형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교사(12.7%)와 학부모(14.7%)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았으며, 비율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 1.2 서류 평가에서 각 영역의 중요도

J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 영역인 인성, 적성, 잠재력이 학생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각각 어느 정도 중요도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교사와 학부모에서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영역 모두 4점 이상의 평균을 기록해 모든 영역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표 6. 서류 평가 영역에서 각 영역의 중요도

영역	대상	N	평균	표준편차	t	df	p
인성	교사	102	4.39	.82	2.518	168	.013
	학부모	68	4.06	.88			
적성	교사	102	4.48	.77	1.729	168	.086
	학부모	68	4.26	.84			
잠재력	교사	102	4.28	.91	1.202	168	.231
	학부모	68	4.12	.86			

교사 응답의 결과를 살펴보면, '적성' 영역이 4.48의 평균을 기록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인성(4.39)', '잠재력(4.28)'의 순이었다. 반면 학부모 응답에서는 '적성(4.26)'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사 집단과 동일했으나 '적성(4.06)'보다 '잠재력(4.12)'을 좀 더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두 집단의 응답 차이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인성' 부분에서 교사의 응답 평균이 학부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면 '적성'과 '잠재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두 집단 모두 적성이 학생의 수학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에 비해 현장 교사들이 더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현재 학생 선발 기준에서

인성 영역에 대한 비중이나 평가 방법 등이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1.3 인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의 한 요소인 인성 평가에 있어 학교생활 충실성, 사회성 및 봉사성 외에 필요한 평가 영역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7. 인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평가 영역

교사	학부모
<b>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b> - 협동심 - 공동체 의식 협동심 민주시민 - 공동체역량 - 협력	<b>기타</b> - 자치활동 -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 리더십 - 어려운 친구, 왕따 구분 없이 도와주는 의지해가는 형제애
<b>공감 및 배려</b> - 공감능력 - 배려심	
<b>성실성 및 학교생활 참여도</b> - 출결 등을 활용한 성실성 - 학교생활 참여도 - 성실성 책임감 - 출결 사항, 동아리 활동	
<b>기타</b> - 창의성 - 의사소통능력 - 리더십 - 예의범절 -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	

먼저 교사 집단은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즉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학교생활에 성실해 참여했는지 등을 인성 영역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리더십, 예의범절,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등도 언급되었다.

### 1.4 적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의 한 요소인 적성 평가에 있어 학업성취 능력, 학업수행 능력, 전공적합성 외에 필요한 평가 영역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8. 적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평가 영역

교사	학부모
<b>전공 학습능력</b> - 전공 심화 탐구 능력 - 전공 수행 지속성 - 문제해결력 - 지속성	<b>기타</b> - 전공독서 - 개인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성파악이 필요 - 적성영역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수업과 더불어서 적성을 찾고 심화시킬 수 있는 수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임. - 정해져있지 않는 다방면 재능
<b>전공 관련 활동</b> - 전공독서 - 전공과 관련한 경험	
<b>기타</b> - 획기적인 리더 - 자기계발성 - 발전 가능성 - 창의성 - 학업성취 경험 - 단체활동 참여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집단은 전공 심화 탐구 능력, 전공수행 지속성, 문제해결력 등 전공 학습능력에 해당하는 영역을 적성 영역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 이 영역은 기존 J대학교 서류 전형의 적성 평가 영역인 학업수행 능력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대학 입학 전 전공 독서와 같은 전공 관련한 활동이나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도 적성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리더십, 학업성취 경험, 다방면의 재능 등을 평가, 자기계발성 등이 있었다.

### 1.5 잠재력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의 한 요소인 잠재력 평가에 있어 성장가능성 외에 필요한 평가 영역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9. 잠재력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평가 영역

교사	학부모
<b>성실성과 도전 정신</b> - 도전정신 - 의지력 - 실패경험 - 열정 - 성실성	<b>기타</b> - 전공독서 - 희망학과에 대한 이해와 노력 - 탐구력 - 성장 가능성은 기초인문학과 기초과학 외국어 능력을 평가. - 컴퓨터, 미술
<b>발전 가능성</b> - 발전 가능성 - 실현가능성 - 자기발전계획 -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b>전공 관련 역량</b> - 전공 관련 기본 역량 - 전공독서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호기심</li> <li>- 독서능력</li> <li>- 문제해결력</li> <li>- 자기효능감</li> <li>- 수행평가의 참여도</li> <li>- 창의성</li> <li>- 잠재력 영역 축소</li> </ul>	
--	--

성장가능성 판단에 있어 교사 집단은 학생의 성실성과 도전 정신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 특히 학생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그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전공수행 이전에 전공 독서를 통해 관련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적 호기심,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수행평가의 참여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으며, 이 부분의 평가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면접 평가

### 2.1 면접 평가에서 각 영역의 중요도

J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평가 영역인 인성, 적성, 잠재력이 학생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각각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교사와 학부모에서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류 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 영역 모두에서 4점대 이상의 평균을 기록했다.

표 10. 면접 평가 영역에서 각 영역의 중요도

영역	대상	N	평균	표준편차	t	df	p
인성	교사	102	4.53	.71	2.484	126.969	.014
	학부모	68	4.22	.84			
적성	교사	102	4.48	.74	2.032	168	.044
	학부모	68	4.24	.81			
잠재력	교사	102	4.36	.76	2.323	168	.021
	학부모	68	4.07	.85			

교사 응답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성' 영역이 4.53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적성'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뽑았던 서류 평가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였다. 다음으로는 '적성(4.48)', '잠재력(4.36)'의 순이었다. 반면 학부모 응답에서는 서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성(4.24)'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

으로 '인성(4.22)', '잠재력(4.0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 평가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적성 중심의 평가를, 면접 평가에서는 실제 면대면 면접을 통해 인성 중심의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응답 차이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세 영역 모두에서 교사의 응답이 학부모의 응답 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 2.2 인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평가의 한 요소인 인성 평가에 있어 인성 및 가치관, 의사소통능력 외에 필요한 평가 영역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1. 인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평가 영역

교사	학부모
<b>협력과 배려</b> - 협업능력 - 봉사 - 나눔과 배려 - 공감능력 - 공동체 의식 - 배려 - 협력 - 리더십이나 협동 능력	<b>협력과 배려</b> -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융합하고 화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 공감력 -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결과물 - 자발적인 공동체 참여 능력
<b>가치관</b> - 개인 철학 - 올바른 가치관 - 인성관련 활동부분 참여도	
<b>성실성</b> - 성실성	<b>기타</b> - 전공독서
<b>기타</b> - 감정조절능력 - 문제해결 능력 - 적성 - 자기주도적 능력	

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대다수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 즉 협력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존 평가 기준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려 하고 있지만, 특히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을 면대면 면접 평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밖에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성실성, 감정 조절 능력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 2.3 적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평가의 한 요소인 적성 평가에 있어 전공적합성 외에 필요한 평가 영역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2. 적성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평가 영역

교사	학부모
<b>전공 활용 및 탐구 능력</b> - 전공 수행 지속성 - 전공활용능력 - 심화 탐구 능력 - 탐구능력 - 어려운 과제일수록 집중하는 능력 - 문제해결력 <b>전공 관련 활동 및 호기심</b> - 전공체험 - 전공독서 - 전공 호기심 <b>기타</b> - 어학능력 - 책임감 - 교과수업의 성실도 - 전문성 - 의사소통 능력 - 관련 직업인으로서의 사회공헌의식	<b>기타</b> - 진로희망사항 -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공이해 - 전공과 관련된 현장 참여 - 적성 탐색 및 적용 능력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부분은 전공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탐구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관련 전공에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전공 독서와 같은 전공 관련 체험을 했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학능력, 관련 직업인으로서의 사회공헌의식, 의사소통 능력 등이 있었다.

### 2.4 잠재력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평가의 한 요소인 잠재력 평가에 있어 성장가능성 외에 필요한 평가 영역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3. 잠재력 평가에서 추가로 필요한 평가 영역

교사	학부모
<b>자기 발전 계획 및 발전 가능성</b> - 자기발전계획 - 진로희망 -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발전 가능성 <b>동기 및 관심</b> - 동기 - 지적호기심	<b>기타</b> - 진로활동 - 기초 인문학, 과학, 외국어를 활용한 과정과 결과물 - 자기소개 듣기, 포토폴리오 발표

- 관심	
<b>도전정신</b> - 시행착오를 통한 도전정신 - 실패경험	
<b>기타</b> - 문제해결력 - 자기효능감 - 다양성 - 지식에 대한 선별과 정보처리능력 - 독서활동 - 창의성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미래에 대해 확실한 자기 계획이 있는지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관련 전공에 대한 학습 동기, 지적 호기심 등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 시행착오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도전 정신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2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정보처리능력, 기초 학문을 활용한 과정과 결과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3.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4.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의 방향

교사	학부모
<b>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b> - 수시 현행 유지 -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내지는 폐지 - 너무 많은 측면의 과정은 지금과 같은 수시 문제를 발생시킨 -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 대한 정보의 균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2015 개정교육의 대입전형 반영은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시 전형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북지역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아무 막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능 이후 교실 상황 붕괴 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b>평가 방법 및 기준 다양화</b> -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정해진 평가 기준에 맞춰 있는 학종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한다. - 학생의 내재된 능력 발휘 기회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b>대학 학생 선발 평가 영역 관련</b> -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의 중요도를 더 높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b>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성 확보</b> - 학생부 자체가 이제는 공정한지에 대한 물음이

인성을 평가하는 척도보다 더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 다방면의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 전공 관련 교과 선택에 따른 가산점 부여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 학생을 자신이 직접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시 부분 확대
<b>고등학교 평가 체제 관련</b> - 성취평가제 전면도입 - 과정 중심 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절대평가 실시	
<b>기타</b> - 지원학생의 현장방문 확인 및 1면담	

먼저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본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여러 문제, 특히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나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학부모들은 대학 학생 선발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까지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이외에 학생의 내재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선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 이러한 의견은 교사 응답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부모 응답에는 없지만 교사 응답에서만 발견된 내용으로는 고등학교의 평가 체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 내용은 과정 중심 평가, 성취평가제, 절대평가 등 상대평가가 평가보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 역량을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입 전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02명과 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6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 내신성적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13.5%)이나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23.5%)보다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63.0%)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기존의 선행연구[3][5-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서류 평가의 세부 영역인 인성, 적성, 잠재력 모두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4점대 이상의 응답을 기록했다. 즉 교사와 학부모 모두 서류 평가에서 세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적성 영역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셋째, 면접 평가에서도 서류 평가에서와 같이 인성, 적성, 잠재력 모두 4점대 이상의 응답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서류 평가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적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지만, 면접 평가에서는 학부모 집단은 적성을 중요시한 반면, 교사 집단은 인성을 면접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 전형 방향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의 중요도를 높여야 함,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되어야 함,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다양화되어야 함,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선발 지표인 인성, 적성, 잠재력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입시 요강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맞춤형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 등을 이유로 평가 지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선발 기준의 공개는 학생 스스로 고등학교 입학에서 대학 입학까지, 즉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학생 선발 시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

는 과정 중심 평가 방법, 예를 들면,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포트폴리오법, 관찰법 등의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과정 중심 평가의 참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또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과목, 진로에 적합한 과목들을 내실 있게 수강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단위학교 수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15.
- [2] 강기수, 박소영,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pp.49-76, 2017.
- [3] 공자원, 박은아, 이지연, “K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연구: 수도권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입학전형연구*, 제6권, pp.219-252, 2018.
- [4] 류성창, 이윤옥, “고등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분석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학 입시전형 실무자들의 인식,”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6권, 제3호, pp.133-159, 2018.
- [5] 차정민,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6.
- [6] 김순찬,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교육제주*, 제155권, pp.62-69, 2012.
- [7] 오성근,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 [8] 김한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53-77, 2019.
- [9] 이광현,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안,” *교육사회학연구*, 제28권, 제3호, pp.57-95, 2018.
- [10] 김평원, “대입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4권, 제3호, pp.105-126, 2018.
- [11] 박찬호, 이진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 및 공정성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 제8권, pp.151-193, 2018.
- [12] 한우석, 강경희, 김진경, 이해경,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면접전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호, pp.391-398, 2012.
- [13] 윤소정, 전보라, 김희용, “국내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실태와 확보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pp.74-82, 2015.
- [14] 이미경, 오희정, “대입전형의 정성적 평가 타당성에 대한 사례분석(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입학전형연구*, 제4권, pp.1-22, 2015.
- [15] 김보경, 최지은, 유평수, “대입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1호, pp.93-119, 2015.
- [16] 허정은, 원효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7권, 제3호, pp.804-812, 2015.
- [17] 문윤지, 김진,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영향: P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2권, pp.117-144, 2018.
- [18] 안선희,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대학입학전형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6호, pp.36-69, 2015.
- [19] 이수정, 조원기,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대신 반영 강화 정책과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련성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7권, 제3호, pp.125-150, 2014.
- [20] 김희용,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제25권, 제1호, pp.21-50, 2011.
- [21] 이종학, 김유영, 윤마명, “예비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통한 교육대학 입학과 사교육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1호, pp.132-143, 2019.
- [22] 백민경, 백광호, 이제영,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 입시 방향 연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1호, pp.422-434, 2020.

[20] 최정목,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562-573, 2016.

### 저 자 소 개

이 제 영(Je-Young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교육학사)
- 2013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4년 3월 ~ 2017년 8월 : 세한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2017년 8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학문목적영어, 코퍼스언어학, 연구종합 등

백 광 호(Kwang-ho Baek)

정회원



- 1995년 2월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문학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문학박사)
- 2009년 ~ 현재 :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한문교과교육론, 교사교육 등

백 민 경(Min-kyung Baek)

정회원



- 2009년 8월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가정학석사)
- 2015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2018년 2월 : 국·공립 중등 가정과 교사
- 2018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가정교과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